

F64

김지우

어떻게 밤에게 친
절하지

않을 수 있어?

고통처럼

헤프
게 입 벌린 달이

밤공기를
녹여주는데

흘러내
리는 석유에 잔뜩

취한 듯

췌,

췌,

췌소리를 내지를 수 있는데

그러니
까

내가 소년과 소녀였을 때

교복을 입으
면 가랑이가 찢어졌어

우윳빛

으로 열
어지는 그늘

내
장은 교실 바닥에

툭,

떨어진 채 꿈틀거리고

먼지에서 무수히
이는

진동, 투명한
날

갯짓

소년은 어제 본 새를

오늘 다시
만나고

거리를 가
늠한다, 소녀는

새를 붙잡고

그걸 짓
이길

수 있을 만큼 우리의
손은

사려깊고

명확했어

YELLOW

김지우

1. 2020년 겨울

너는 결국 2년 후로부터 돌아와 동거인과 안양천에서 개를 산책시키다 그가 잠깐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개의 목줄을 풀어준 뒤 엉덩이를 세계 건너차 버리겠지.

나는 도박과 코인으로 모은 돈을 날렸지만 집에 여유가 남았으니 서울로 가지.

루루는 2018년에 사라졌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네.

성민은 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들을 위해 진 카드 빔을 갇느라 바쁘겠지.

용호는 어두운 방에서 랏슈 한 통을 얼굴에 얹지른 채 다음 날 두드러기로 엉망진창이 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분비물로 뒤덮이며 그게 아침처럼 눈부시다고 생각해.

지우는 언제 자살했는지 기억도 안 나.

현진은 이혼하는 대신 텔레그램으로 자동 삭제될 사랑 문자를 주고받고 있고.

소라는 인천에서 보낼 마지막 계절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동안에는 폐쇄병동이 아니라 소셜 안에서 휴가를 보내며 슬픈

기억 없이도 슬퍼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지.

죽은 여자처럼.

죽은 소년처럼.

, 너는 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사라져버리고 싶은
걸 참고 있지.

2. 2018년 여름

어제는 내가 2.5차원에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만
화책에서 봤던 악어가 화장실에 나타나서 하루종일 변기 대신
싱크대에 오줌을 싸느라 그런 건 아니야.

3. 2022년 겨울

우리는 개를 산책시키며 어제 본 살인 뉴스에 대해 이야기한
다.

너는 웃으면서 살인자를 이해한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부자
였으면 더 기뻐할 거라고 말해.

너는 너일 뿐이고 나는 그게 기쁘지.